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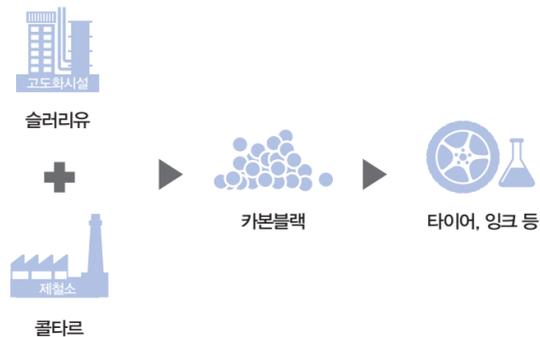
VISION 2020

미래를 이끌어 갈 신규사업



카본블랙 사업

카본블랙은 고도화 시설에서 나오는 슬러리유와 제철소에서 석탄을 떨어뜨릴 때 나오는 콜타르를 함께 불완전 연소시킬 때 생기는 그을음으로 만드는 미세한 탄소분말이다. 주로 자동차 타이어, 튜브 등 고무제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쓰이며 잉크, 페인트, 플라스틱 제조에도 사용된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카본블랙의 수요도 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국내외 제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카본블랙 사업을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키워 나갈 예정이다.



프로필렌유도체 사업

프로필렌은 2개의 탄소가 하나의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 화합물이다. 고도화 설비의 유동층 촉매분해공정(RFCC)에서 부산물로 생성된다. 프로필렌과 다른 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석유화학산업의 다양한 원료를 만드는 것이 프로필렌유도체 사업이다.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자동차 내장재 및 단열재의 원료가 되는 프로필렌 옥사이드, 아크릴섬유의 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 포장용 비닐의 원료인 PVC 등이 있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프로필렌 유도체 사업은 꾸준한 수요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밝다.





MX제조 사업

혼합자일렌(MX)제조 사업은 콘덴세이트를 도입해 경질납사와 혼합자일렌 등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혼합자일렌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파라자일렌(PX)을 생산하는 제 2BTX의 원료로 쓰인다.

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과 합작, 2014년 현대케미칼을 설립했으며 2016년 상업가동을 목표로 대산공장에 MX제조 설비를 건설 중이다. MX 공정에서 생산되는 연간 100만 톤 규모의 혼합자일렌은 연간 2조 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3조 원의 수출증대 효과 등 안정적인 수익 기반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제2 윤활기유 사업

윤활기유는 고도화 공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VR)를 재처리해 생산되며 윤활유 제품의 기초 원료가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글로벌 기업 셸(Shell)과 합작, 2012년 현대셸베이스오일을 설립해 윤활기유 사업에 적극 진출했다. 2014년 상반기, 대산공장에 하루 2만 배럴 처리 규모의 윤활기유 공장을 준공해 본격적인 상업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그룹2 윤활기유를 생산하는 제2 윤활기유 공장을 추가 신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